

# 100살 아기



## 지은이 문형정

도시에서 살다 방학이면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서 물장구 치고 소 몰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. 도시의 편안함은 버릴 수 없고 복잡함은 싫어서 도시도 아닌 시골도 아닌 도시에 인접한 읍에 살고 있는 천상 전업주부입니다.

그런 엄마를 닮아 높은 아파트 숲속에 서서 “엄마, 나 어지러워.”라고 하는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. 아들에게 책 읽기와 밖에서 뛰어 노는 게 제일이라고 말하는 엄마입니다. 나의 말이 맞길 기도합니다.

## 그림책을 지으며

‘왜 사서 고생을 하나.’ 생각했습니다.

모두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했을 때 엄마는 “못 보낸다. 내가 모실게.” 반기를 들었습니다.

그렇게 3년 동안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. 늙은 엄마가 더 늙은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.

돌봄이 힘겹고 살아 있어서 힘겨운 두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.

두 엄마의 모습에서 너와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.

나이 많은 엄마를 둔 아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.

“엄마! 오래 살아야 해. 엄마랑 나랑은 너무 늦게 만났어!” 코끝이 짹해 옵니다.

이것으로 되었습니다.



## 100살 아기

초판 1쇄 | 2022년 9월 21일

지은이 | 문형정

제작지원 |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

발행인 | 이현숙

펴낸이 | 최문성

펴낸곳 | 도서출판 달구북

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4안길 28, 1층 (범물동)

Tel) 070.4175.7470 Fax) 0504.199.0257

Email) [dalgubook21@naver.com](mailto:dalgubook21@naver.com)

Homepage) [www.dalgubuk.com](http://www.dalgubuk.com)

출판등록 | 제2022-000001호

© 2022, 문형정

ISBN 979-11-90458-11-5 (77810) (비매품)

본 도서는 ‘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[1관 1단] 사업’의 후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달구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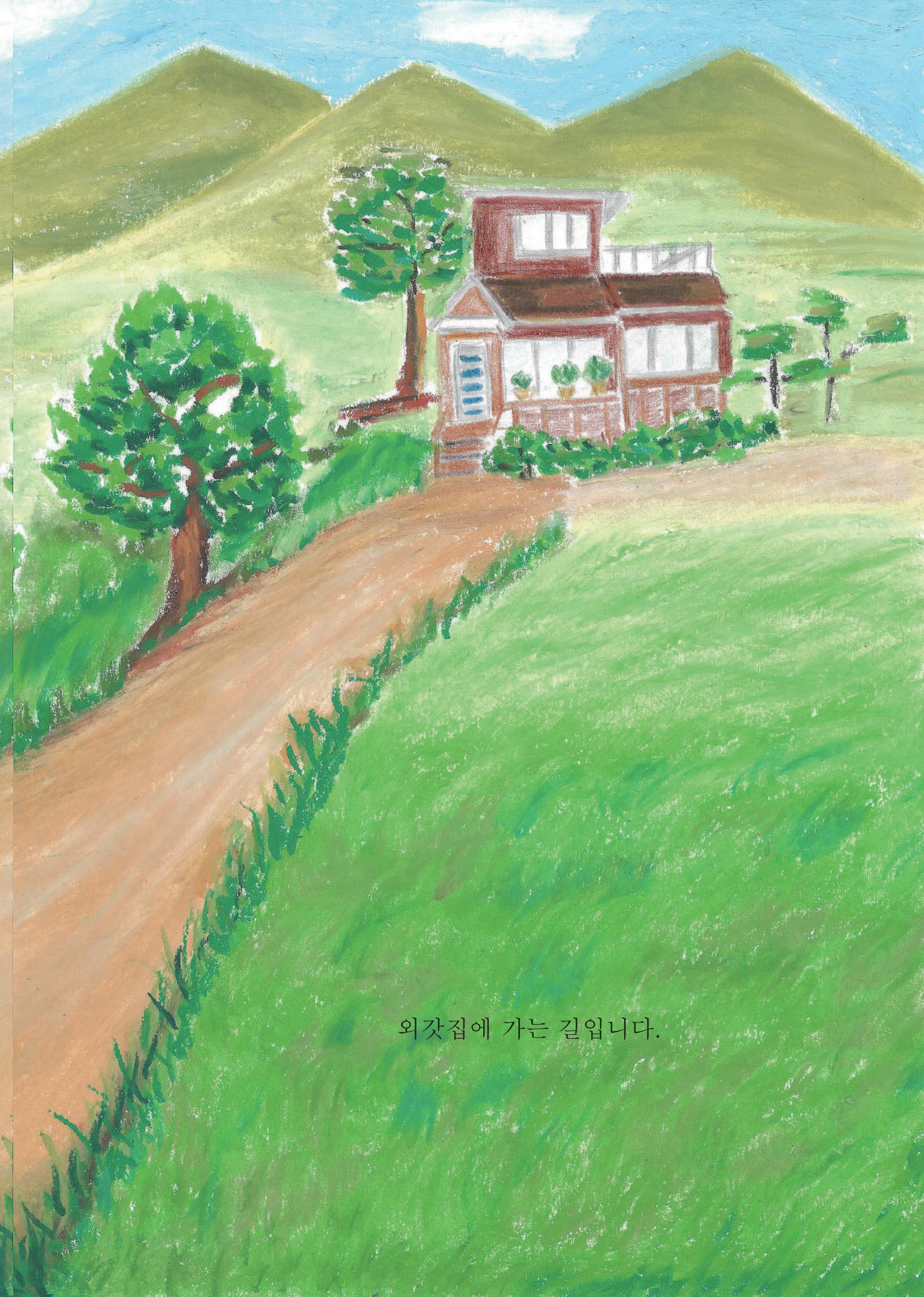


# 100살 아기

글 · 그림 문형정

D  
달구속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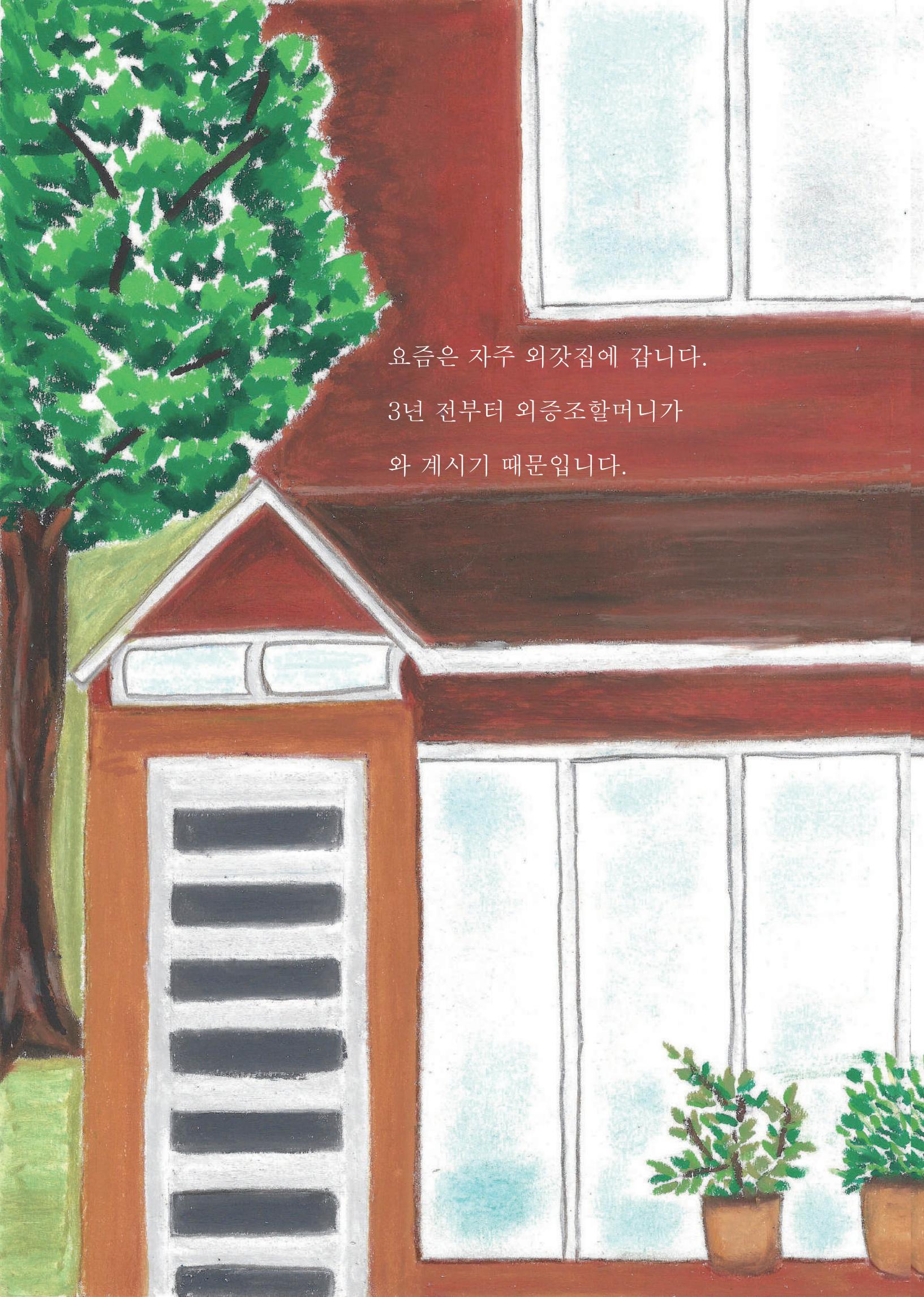
외갓집에 가는 길입니다.

나는 외갓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.

외할머니는 나에게 최고의 요리사거든요.







요즘은 자주 외갓집에 갑니다.

3년 전부터 외증조할머니가

와 계시기 때문입니다.



“할머니, 저희 왔어요!”

“누군교? 어데서 왔는교?”

“저예요, 현정이! 모르시겠어요?”



한참 후에야,

“현저이가? 와 이래 오랜만에 왔노?

너거 아들이가? 참하다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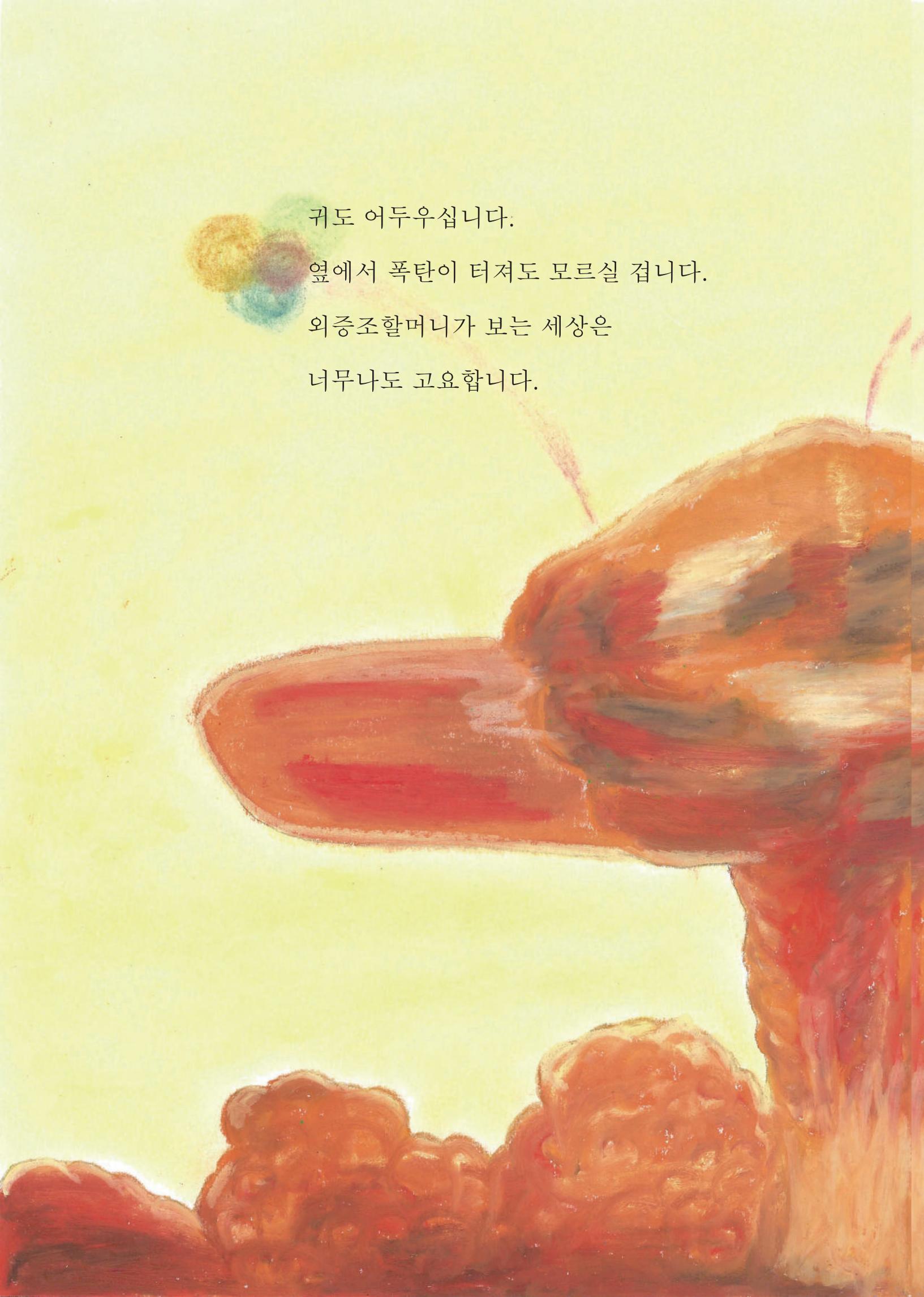
외증조할머니는 형광등 깜빡이듯 기억을 하십니다.





외증조할머니는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서  
다리를 펼 수 없습니다.  
그래서 늘 같은 자세로 있습니다.

앉아 있을 때도,  
누워 있을 때도.



귀도 어두우십니다.

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르실 겁니다.

외증조할머니가 보는 세상은

너무나도 고요합니다.





외증조할머니는  
밥도 깨끗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.

국물도 흘리고,  
밥풀도 여기저기 묻힙니다.

옷에도 밥상에도 저지레를 합니다.



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.

“배 아프다, 똥 나온다.”

외할머니는 재바르게 이불을 바닥에 깁니다.

그다음

외증조할머니를 안아 이불 위에 올리고,

이불 썰매를 끌고 화장실로 갑니다.

외증조할머니는 불안해서,

썰매 끄는 외할머니는 힘이 들어,

인상을 씁니다.







목욕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.

이번에도 이불 썰매를 타고 화장실로 갑니다.

“뜨겁다!”

“춥~다!”

“아프다! 살살 해라.”

투정을 부립니다.



외증조할머니는 따뜻한 물로,

외할머니는 뜨거운 땀으로,

목욕을 합니다.



그나마 양치는 아주 쉽습니다.

“엄마! 양치해 줄게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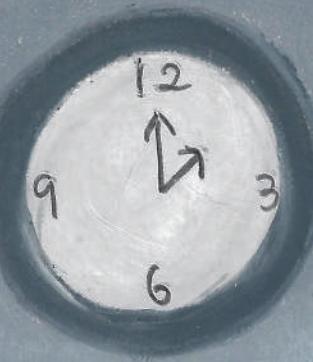
그러면 외증조할머니는 손으로  
분홍색 윗니 아랫니 틀니 두 개를 빼주십니다.

틀니를 뺀 외증조할머니는,



귀여운 호호 할머니가 됩니다.





어떤 날은  
하루 종일 얘기를 하십니다.  
혼잣말로  
때로는 상상 속의 친구와  
옛날 기억들을 주고받습니다.

가만히 귀기울여 들어보면  
억울하고 속상했던  
어릴 적 이야기입니다.







그래서

외증조할머니는 지금 아기처럼 되었나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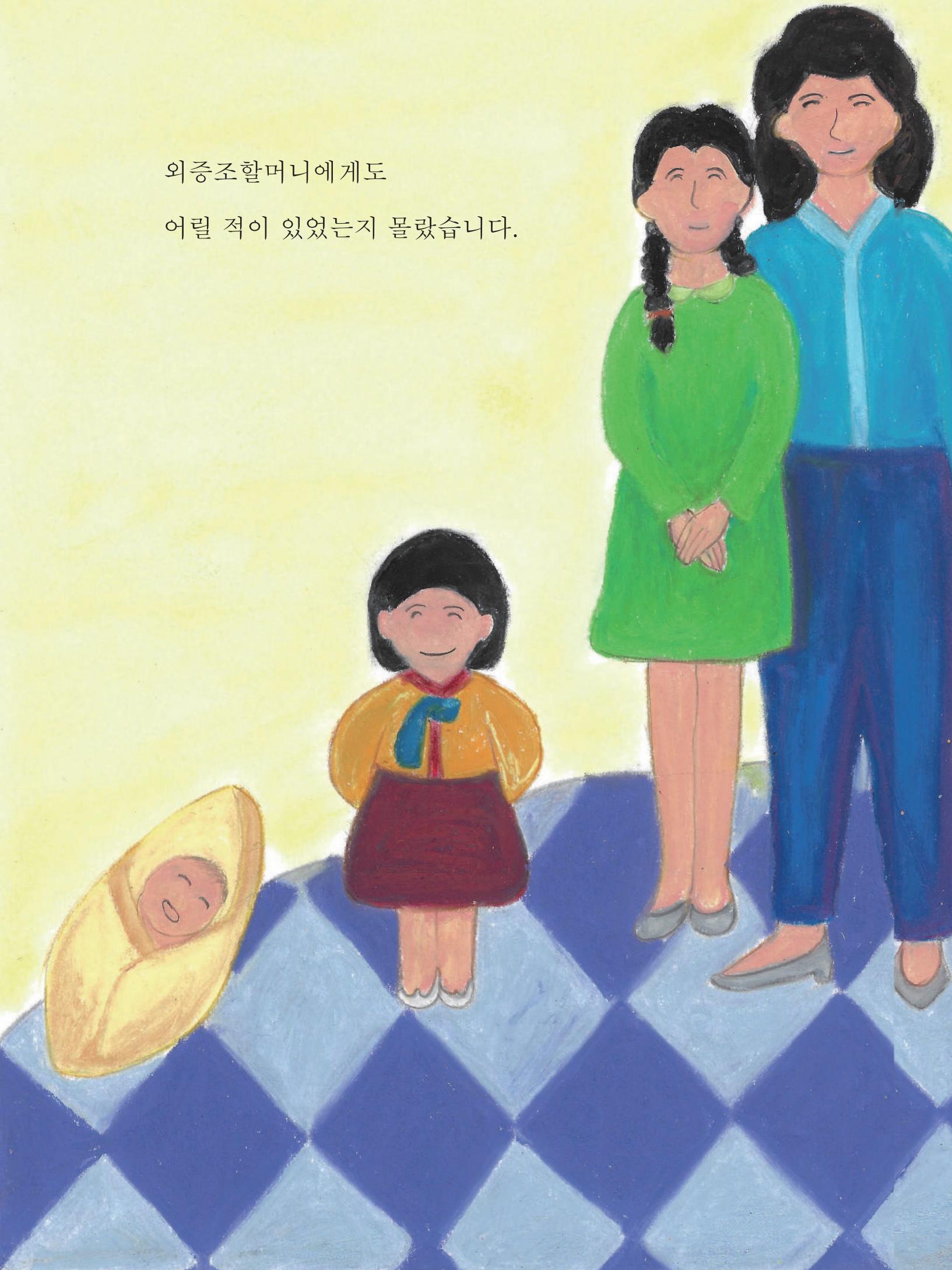
어릴 적

엄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그리워서.





외증조할머니에게도  
어릴 적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.



나에게 외증조할머니는  
처음부터 외증조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.



외증조할머니는 100살 아기입니다.

100년 전에 받지 못한 보살핌을  
지금 늙은 딸에게 받고 있습니다.





그 오래 전

100살 아기가 늙은 딸에게 했던 것처럼.